

## 基調講演

# 李退溪의 哲學思想

慶北大 教授 韓 明 洙

모든 思想은 그 時代의 表現이다. 대저 한 時代의 底流에는 어떤 〈一般的인 觀念〉이 生動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 時代의 性格을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偉大한 思想은 時代를 超越하여 永續的·本質的인 것으로 自己를 止揚한다. 그리고 이 本質的인 것은 오고 오는 世代에 다시금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退溪思想의 本質的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의 狀況에서 어떠한 意義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問題들의 一端을 밝혀보려는 것이 이 講演의 企圖하는 內容이다.

一般的으로 退溪學은 朱子學을 繼承하여 이것을 더욱 發展시켜서 大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朱子學의 骨格은 〈窮理〉와 〈居敬〉 또는 〈道問學〉과 〈尊德性〉으로 集約된다. 요새 말로 바꾼다면 窮理는 理論哲學이요 居敬은 實踐哲學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면 窮理와 居敬, 理論과 實踐, 知와 行의 關係는 어떠한가? 이 問題는 오늘날 특히 Marx主義 哲學에서 자극을 받아 哲學의 根本問題의 하나로 登場하고 있다. 시세 말로 產學協同이라는 것도 이 問題와 關聯될 것이다. 즉 理論을 위한 理論인가? 아니면 實踐을 위한 理論인가? 혹은 學을 위한 學인가? 아니면 삶을 위한 學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問題에 대하여 東洋에서는 일찌기 王陽明이 〈知行合一〉說을 提唱했고 오늘날 辯證法的 哲學에서는 理論即實踐이라는 絶對的인 辯證法的 統一을 主張하고 있다. 退溪는 朱子의 先知後行, 知行互進說을 展開하여 〈知行並進〉을 提唱했다. 知行並進이란 쉽게 풀이하면 배우면서 行하고 行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退溪는 이것을 수레의 양 바퀴와 새의 두 날개에다 比喩하고 있다.

陽明이 知와 行을 하나(一物)로 보는 데 반하여 退溪는 우선 知와 行을 區別하면서도(二物) 서로 分離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이 不可分離를 決코 絶對的인 辯證法的 統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처럼 退溪가 知와 行을 區別하는 것은 옳은 見解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령 實踐哲學이나 實踐을 위한 理論 즉 實踐的 理論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實踐에 대한 反省이요 理論이지 實踐 自體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實踐의 理論과 意志的(行爲的) 實踐은 區別되어야 한다. 그리고 知와 行은 並進해야 한다는 退溪의 主張은 오늘날 理論輕視 내지 理論嫌惡의 風潮에 대한 警告의 一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行이 없는 知는 徒知요 知가 없는 行은 妄行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退溪는 實踐的 理論과 意志的 實踐을 區別하는 동시에 이 兩者를 統一하는 原理를 〈敬〉으로 把握하고 있다. 實踐的 理論은 實踐에 대한 反省이요 이것은 主觀이 客觀化한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行爲가 自己를 否定하고 理論으로 變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意志의 自己否定은 한편으로 自己肯定的 意志를 隨伴한다. 意志가 否定되려면 이것을 否定하는 意志가 必要하며, 이것은 바로 自己를 肯定하는 意志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注意할 것은 自己를 否定하여 理論으로 轉化하고 있는 意志와 이것을 意志하고 實踐하는 意志는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非二物). 換言하면 自己否定的 意志는 한편으로 肯定的 方向에 따라 意志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肯定的 意志에 의하여 自己否定을 成就하는 하나의 現象속에 統一되어 있다. 이러한 統一의 原理가 곧 敬이다.

그러면 敬의 統一作用은 어떠한 것인가? 退溪는 〈聖學十圖〉 劄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敬을 지킨다는 것은 思와 學을 兼하고 動과 靜을 一貫하고 內와 外를 습하고 顯과 微를 한결(一)같이 하는 方道이다.” 여기에 動·外·顯은 狹義의 意志의 實踐을 뜻하며 靜·內·微는 實踐的 理論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貫·습·一은 意志的 行爲가 否定되어 理論으로 轉化하는 동시에 自己否定的 意志가 自己肯定的 意志에 의하여 自己否定을 成就하는 同一한 敬의 現

象이라 하겠다.

敬이란 先儒들의 定義에 따르면 〈整齋嚴肅·主一無適·常惺惺〉이라는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敬이라는 것은 動靜에 삼가고 조심하며 이것을 反省하는데 精神을 統一하여 항상 潑刺한 人間의 本來的 自己를 顯現하기 위한 實踐的 修練이다. 그것은 行爲의 機微를 省察하고 人間의 本來性을 存養하는 것이다. 存養이란 意志의 肯定面을 말하고 省察이란 同一한 意志의 否定面을 말한다. 退溪는 敬을 知와 行, 理論과 實踐을 統一하여 徹頭徹尾 知識을 生活化하는 自省修養의 原理로 發展시켰다. 朱子學이 先知後行이라 하여 知를 偏重하는 傾向이 없지 않지만 退溪學은 理論을 實踐으로 歸一 徹底化했다는 데 그 特色이 있다. 敬은 실로 退溪哲學의 根本原理요 始와 終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처럼 敬이라는 것이 人間의 本來性에 內在하는 天理를 存養하고 整齊嚴肅·戒愼恐懼하여 心機를 省察하는 삶의 態度라면, 그것은 오늘날 西洋哲學에서 말하는 이른바 〈存在에 대한 敬畏〉라는 삶의 態度와 어떤 意味에서는 一脈 通하는 點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思想에 따르면 現代는 存在를 忘却했기 때문에 〈世界의 밤〉의 時代가 到來했다. 人間은 傲慢不遜하게도 眞理에 反逆하고 眞理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 어두운 世界의 밤의 時代에서 祝福을 받기 위해서는 人間은 眞理의 소리에 聽從하고 存在에 대한 敬畏를 가지고 恭順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敬畏는 비단 存在에 대한 敬畏 뿐만 아니라 神에 대한 敬畏, 權威에 대한 敬畏,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敬畏로도 풀이될 수 있다. 現代人은 이러한 敬畏를 忘却하고 傲慢不遜하게 하나님과 眞理에 대해 反逆하고 國家의 權威를 背反하여 온갖 不幸을 自招했다. 오늘날 人間이 祝福받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敬畏하고 모든 權威에 恭順해야 한다. 그리고 眞理를 守護하며 愛族하는 忠情에서 祖國을 把守하는 役軍이 되어야 한다. 敬의 思想은 단순히 知·行의 形式的인 統一 原理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참뜻은 여기에 까지 展開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退溪哲學을 말할 때 나는 退溪의 道德論의 獨創性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그 獨創性이란 退溪의 道德哲學을 이른바 〈心術道德〉 또는 〈法則倫理〉로 特徵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倫理學을 原理에 따라 〈善惡의 倫理學〉과 〈法則의 倫理學〉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善惡의 倫理는 善과 惡을 그 自體로서 規定해 놓고 이 善 自體를 指向하는 行爲가 道德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는 倫理요, 이것에 반하여 法則의 倫理는 行爲의 原理原則의 正當性(善)에서 行爲의 道德性을 規定하는 倫理이다. 다시 말하면 善惡의 倫理란 善惡의 概念에서 行爲의 法則을 導出하려는 立場의 倫理를 말하고 法則의 倫理란 반대로 行爲의 法則에서 善惡의 概念을 導出하려는 立場의 倫理를 말한다. 그리고 善惡의 倫理나, 또는 法則의 倫理나 하는 問題는 倫理學의 性格과 그 學的 可能與否를 가늠하는 것으로서 現代倫理學의 根本的인 爭點이 되어 있다.

退溪는 이 問題를 自省錄의 一文(答黃仲學 論白鹿洞規 集解)에서 詳論하고 있다. 여기서 退溪는 〈正其義不謀其利〉라는 董仲舒의 말을 引用하여 論述한다.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利를 圖謀한다〉는 것은 君子에 있어서는 마음에 〈위하는 바가 있다〉(有所爲)는 害를 끼치고 衆人에 있어서는 私利貪慾의 구렁텅이가 되며 天下의 惡은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行爲의 道德性은 마음에 〈위하는 바〉의 有無에 의하여 規定된다. 다시 말하면 行爲의 道德性은 〈위하는 바가 없이〉(無所爲) 오직 純粹한 道義心에서 行爲하는 데 成立한다. “君子의 마음이 비록 본시 義를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일에 臨하여 혹은 義와 一致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私利를 向하는 意志가 있다면 이것은 〈위하는 바가 있어〉 行하는 것이며 그 마음은 이미 義에 背馳된다.”

여기에 〈義와 一致한다〉는 것은 行爲가 단순히 道義에 適合한다는 것이 아니라 行爲의 動機가 〈위하는 바가 없이〉 오직 道德律에 의하여 規定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解釋할 수 있다면 〈正其義不謀其利〉라는 命題에서 行爲의 法則을 導出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命題에 있어 〈其義〉를 普遍的 法則으로 풀이하고 〈不謀其利〉를 〈無所爲〉로 해석해서 〈위하는 바가 없이 그 義를 바르게 한다〉로 轉換한다면 退

溪의 道德律은 Kant의 定言命法에 準하여 다음과 같이 定式化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너의 心意의 準則이 위하는 바가 없이 道義로서 妥當할 수 있도록 行爲하라.>

以上과 같이 해석한다면 退溪의 道德哲學이 行爲의 道德性을 善의 概念에서가 아니라 本質의 行爲의 原則의 妥當性에서 導出하는 法則倫理라는 것은 明白하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義와 利의 幾微를 徹底히 省察하고 行爲의 動機를 重視하는 <心術道德>을 結果한다. 退溪의 解釋에 따르면 <正其義不謀其利>라는 말은 본시 君子의 心術의 精微한 곳을 겨냥하는 것이며 단순히 利己貪慾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털끝만한 <有所爲>의 心意에서 마침내 衆人의 貪慾에 빠지게 될 수 있으니 만일 나는 <有所爲>의 利를 圖謀할 뿐 決코 衆人과 더불어 惡行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小人輩의 自己欺瞞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退溪는 行爲의 動機를 重視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重要한 것은 <위하는 바가 없이> 粹純한 道義心에서 行爲한다는 것이다. <無所爲>는 우리들의 意志가 이른바 <幸福의 原理>에 의해서가 아니라 道德律에 의해서 直接的으로 規定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退溪가 法則倫理를 先導한 事實은 道德의 本質에 대한 깊은 洞察力 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다. 여기에 退溪의 獨創性이 있다. 아무튼 退溪의 道德哲學은 오늘날 善의 倫理나 法則의 倫理나 하는 倫理學의 昏迷를 다시금 照明해 줄 것이다.

끝으로 退溪哲學이 志向하는 窮極目標 또는 理念은 무엇인가? 儒學의 窮極目標은 求仁에 있다. 仁은 실로 人倫道理를 一貫하는 根本原理요 모든 德을 總括하는 道德의 理想이다. 이 理想은 內容的으로 規定하면 孔子의 <愛人>, 孟子의 <惻隱之心>, 朱子の <愛之理> <仁則愛>라는 것이다. 退溪는 이러한 傳統的 概念을 繼承해서 특히 <仁愛>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면 仁愛라 무엇인가? 그것은 <내몸과 가장 親切한> 人格과 人格 사이의 사랑이라고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人格의 仁愛>는 Platon의 eros도 아니요 Aristoteles의 <友愛>(philia)도 아니

며, Stoa學派의 〈博愛〉(agapēsis)도 아니요 墨家의 〈兼愛〉도 아니며, 基督教의 〈近人愛〉도 아니요 Nietzsche의 〈遠人愛〉도 아니다. 退溪에 의하면 仁愛는 自己를 主로 하고 〈내몸과 親切한 곳〉 〈親切有味〉한 곳에서 體認自得되어야 한다. 따라서 人格的 仁愛란 나와 가장 가깝고 親切有味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한다. 이를테면 父子·夫婦·兄弟의 사랑이 그것이다. 이것에 비하면 近人愛의 〈이웃〉도 아직 멀다 하겠다.

人格的 仁愛는 사랑하는 사람의 人格을 構成하는 價値의 一部分이다. 그것은 사랑받는 사람의 人格的 價値를 志向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者는 사랑받는 者의 人格的 存在를 自己의 世界로 끌어들이 이것을 自己 自身の 것처럼 느끼으로써 自己人格을 昇華시킨다. 사랑하는 者는 사랑받는 者의 거울이라고 하는 所以다.

이처럼 人格的 仁愛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人格的 價値 즉 個性的 理念을 志向하는 것이다. 人格的 仁愛는 〈利他〉라는 點에서 본다면 近人愛와 비슷하지만 前者가 個性的인 人格的 價値를 志向하며 選擇的인 데 반하여 後者는 兼愛와 같이 普遍的인 人格的 價値를 志向하고 따라서 사람을 選擇하지 않는다. 近人愛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이다. 이 點에서 본다면 人格的 仁愛는 無差別의인 兼愛와도 다르다. 그리고 近人愛는 他人의 經驗的 存在를 指向하며 그의 幸福을 원하지만 人格的 仁愛는 人間의 理念을 志向한다. 즉 사랑하는 者는 사랑받는 者의 現實的 存在 속에서 直觀된 理念的·道德的 存在를 指向한다. 이 點에서 본다면 人格的 仁愛는 도리어 遠人愛와 비슷하다. 그러나 人格的 仁愛가 어디까지나 個性的인 理念을 志向하는 데 반하여 遠人愛는 類型의 人間의 理念을 志向한다.

그리고 人格的 仁愛는 近人愛를 거쳐서 物我一體의 普遍的인 博愛로 점차 擴充되어 간다는 事實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오직 自己克服·自己否定에 의하여 成就된다. 人格的 仁愛에 있어 사랑하는 者는 이미 〈그를 위해〉 自己가 있는 바의 것을 찾는다. 人格的 仁愛는 人格에 대한 補充的 價値이기 때문이다. 무릇 人間은 본래 利他心을 가지고 있으며 自己를 否定하고 남을 위해 獻身하는 利他心이 近人愛

### 李退溪의 哲學思想

의 本質이다. 이와 같은 사랑에서 나오는 同情이 社會의 連帶性을 높혀 준다. 이것은 오직 自己克服에 의해서만 可能한 것이다. <克己復禮爲仁>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自己를 克服하는 超越的作用에 있어 近人愛는 他人으로 擴充되어 간다. 退溪에 의하면 이 近人愛가 다시 克服될 때 仁愛는 비로소 有我的 私心을 깨뜨리고 無我的 公理를 크게 열어 그 頑固하기 등과 같은 마음으로 하여금 融化洞徹하여 物과 我的 間隔이 없게 하며 一毫의 私意도 그 사이에 容納됨이 없게 한다. 이리하여 天地萬物이 一家가 되고 온 나라가 한 사람이 되어서 痒癩·疾痛이 진실로 내몸에 切實함을 보던 仁道를 얻을 수 있다.

退溪는 誠實한 求道者요 實踐家였다. 그의 求道力行은 오로지 敬으로써 一貫했고 그의 道學的 精神은 眞實과 謙虛로써 始終했다. 그의 오랜 求道的 思索은 知行並進을 指向하여 體認自得을 爲主로 하고 있다. 그의 思索의 視野는 舉頭면 高深遠大한 道德的 理想을 思慕하고 低頭면 親切有味한 現實的 삶에 沈潛한다. 그의 타고난 才能, 透徹한 洞察力 및 強靱한 思考力은 그의 緻密한 文章 사이에 歷然하다. 退溪의 哲學은 이러한 人格과 頭腦의 所産이기에 永續적이고 眞實한 것이 時代를 超越하여 빛나고 있다. 이 眞理의 寶庫를 열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著作을 綿密히 分析하고 그의 思想을 새로운 觀點에서 再認識해야 하겠다. 이러한 研究作業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思索을 鍊鍛해 간다면 退溪哲學은 오늘의 狀況에서 哲學하는 學徒들에게도 堅固한 礎石이 되리라 믿어마지 않는다.